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응원에 힘입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심카 선별진료소, 임시 손세정대 설치, 발열체크소 운영 등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의 예방활동 동참과 응원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란다.

정리 편집부

차 안에서 안전하게 검사받는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

고양시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접수부터 검진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진료방식을 도입한 '고양 안심카(Car) 선별진료소'를 지난 2월 26일부터 주교동 제1공용주차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차 안에서 주문을 넣는 대형 패스트푸드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 매장들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에서 착안한 획기적인 선별진료소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접수, 문진, 처방, 검사과정을 간편하게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다.



1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 2 손세정제 설치 3 고양터미널 발열체크

시민 안전이 최우선! 타 지자체 표준모델 제공

다양한 경로로 인한 검사 대상자가 늘어나 일반 선별진료소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 진료시간이 안심카 선별진료소에서는 20분으로 단축됐다.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이 방문하는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대기자 간 전염 차단, 진료 시 의료진 보호, 소독·환기 시간 절약의 장점이 있어 국내외 주요 방송에 소개됐다. 또한, 지난 3월 4일 정부에서 고양시 운영 사례를 담은 코로나19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의 표준운영모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공했다.

코로나19 필수 예방법 손씻기!! 길거리 손세정대 설치

시민이 길거리를 오가며 간편하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임시 손세정대'를 주요 지하철역 주변과 광장에 설치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는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예방수칙으로 꼽는 중요한 수칙으로 공중화장실에 들르지 않아도 이동 시 간편하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임시 손세정대를 설치한 것이다. 설치 장소는 3호선 원당역-화정역-마두역-정발산역-주엽역-대화역 인근과 라페스타-일산문화공원 등 16곳이다. 임시 손세정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외출 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 대책이다. 임시 손세정대에는 소독제도 함께 비치되어 있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손세정대 이용에 불편함

이 없도록 자체 유지·보수팀을 구성해 매일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구청 및 사업소에서는 시민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 공공놀이터, 음식점 밀집지역 주변, 도서관 등 시설물에 방역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공서, 유동 인구가 많은 정류장,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에 손소독제를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해 손소독제를 교체하고 있다.

터미널, 철도, 공공기관 발열 체크소 설치로 예방활동에 총력 기울여 확진자 진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고양시 공공기관, 고양터미널, KTX 행신역에 발열 체크소를 설치했다.

백석동 소재 고양터미널에 고속버스 모든 이용객과 고양시 공공기관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KTX 행신역 승객을 대상으로 출입구 1개소에서 오전 8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27개 상행선 승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일일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4 장애인복지회관 방역
5 손소독제 설치
6 기부물품

고위험군 임신부와 일손 부족한 약국 지원 나서

마스크 5부제 시행에도 마스크 구입 행렬이 줄지 않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위험군임에도 대리구매가 불가한 임신부, 출산 6개월 이내인 산모 그리고 산모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산후조리원 종사들에게 지난 3월 21일부터 1인 1매 친환경 향균 마스크를 보급했다.

또한, 최근 공적마스크 판매로 일손 부족을 겪는 소형 약국에 마스크도 우미를 지원했다. 이들은 각 동별 주민들로 구성된 안전활동 대원들이고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이다.

함께 이겨냅시다! 따뜻한 기부행렬 이어져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선행들이 잇따르고 있다. 고양시 관내 기관, 기업, 동문화, 협회, 지역경제인, 국내거주 이주민들이 면역력이 약한 저소득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스크 등 방역용품, 생필품, 성금 등을 기부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코로나19 관련 고양시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 대상 고양시 창업 2개월 이상 소상공인
- 한도금액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 이자지원 최대 2%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gcgf.or.kr) → 사이버보증 → 신청서비스 → 보증신청
-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1577-5900)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대상 고양시 내 창업 3개월 이상 소상공인
- 지원 점포당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70% (최대 200만 원)
 - ※ 간판교체, 인테리어(도배, 조명 등), 진열대 개선 등
 - ※ 4월중 공고예정
- 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 소상공인지원과(031-8075-3550~1)



코로나19의 진실



코로나19는 덥고 습한 지역에서도 전염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코로나19는 기후가 덥고 습한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전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보고된 지역을 여행할 경우 해당 지역의 기온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을 자주 씻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다고 코로나19를 막을 수는 없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해도 코로나19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목욕이나 샤워 온도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인간의 몸은 36.5도에서 37도의 체온을 유지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다가 오히려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핸드 드라이어는 코로나19를 죽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핸드 드라이어는 코로나19를 죽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알코올 성분의 손세정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을 닦은 후에는 종이 타월이나 따뜻한 공기 건조기를 사용해 손을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몸 전체에 알코올이나 염소를 뿌려도 코로나19는 죽지 않는다.

몸 전체에 알코올이나 염소를 뿌리더라도 이미 몸에 들어간 바이러스는 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질을 뿌리면 옷이나 점막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알코올과 염소는 오염된 표면을 소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적절한 지침을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항생제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항생제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박테리아에 작용하는 의약품입니다. 코로나19는 박테리아가 아니라 바이러스이므로 항생제를 예방 또는 치료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경우 다른 감염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